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2차 세션 , 창세기 1-3장 에서의 신약 신학의 시작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창세기 1-3장에서 신약 신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신약 신학을 시작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시작했고,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했고, 다른 사람들도 제안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의미에서 시작, 시작, 성경 신학과 신약 신학의 시작점을 제공한다고.

즉,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전개될 모든 지배적인 주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지만, 그 절정과 발전은 신약에서도 발견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거기에서 시작하여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 대해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모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창세기 1장과 3장에서 지배적인 신학적 주제가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작점, 시작점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권적 창조주이며 창조물은 강력한 말씀으로 창조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존재를 빚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은 구약성서의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신학의 시작점을 제공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창세기 1~3장에 대한 몇 가지 논평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이 섹션에서 나타나는 주요 신학적 주제로 제가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매우 흥미로운 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윌리엄 덤브렐이 쓴 성경 신학에 대한 책이고 다른 하나는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입니다.

두 저자 모두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시작하여 지배적인 주제를 찾은 다음, 뒤로 돌아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그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추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확실히 많은 타당성이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1장과 3장에서 시작하여 사실상 같은 주제를 찾은 다음 그것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어떻게 끝날지 추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장,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대해 성경 신학과 관련하여 말하고 싶은 첫 번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적합한 환경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그것들에 대해 모두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모든 것의 주권적인 창조주이시며, 강력한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살고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 번째 부분에서, 저는 1장의 모든 내용을 읽지 않겠지만, 제가 3절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좋았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첫째 날에 저녁과 아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 사이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라.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둘째 날 저녁과 아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나타나라.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른 땅을 땅이라고 부르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좋았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채소와 씨 맺는 식물과 그 안에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땅은 채소와 씨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내었고,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좋았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저녁과 아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거기서 멈출게요.

계속해서 다른 창조의 날들을 이야기하지만, 요점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빛과 어둠이 있어야 한다는 필수성, 어, 빛과 어둠이 분리된다는 것, 물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 육지 식물과 특히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타났다는 것의 주요 특징을 주목하세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자는 땅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선물로 줄 환경이나 땅을 창조하거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도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인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 7일 동안 하시는 일은, 제 생각에, 초점이, 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 뭐, 뭐, 이 모든 것들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확실히 그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설명에서 일어나는 일의 전체적인 목적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인류가 숙고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 이건, 제 생각에 , 여러 가지에 대한 의미를 갖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이 물리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백성이 물리적 창조물에 물리적으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성경 신학이 항상 다루지 않았고 종종 놓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NT Wright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일부 신약 저자는 성경 신학에 관해서 큰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작부터 시작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인간이 물리적 창조물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새로운 창조를 상상하고 구원받은 모든 인류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하늘 과 새로운 땅에 거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요한이 계시록 21장에서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는 데는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의도는 그들이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적인 지구에서 살도록 물리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 창세기 1 장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 지구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의 백성이 즐길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그가 기뻐하는 듯합니다.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 생각에, 우리는 제가 말하고 싶은 다음 내용에서 이것을 잠시 후에 볼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저는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과 능력과 창의성을 보여주시고, 사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시며, 오, 저는, 아마도 누군가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것으로 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고 물과 마른 땅을 갈라서 열매를 맺을 식물과 나무를 만드신 맨 처음에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적합한 환경, 사람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장소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창조의 정점은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인류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요점입니다. 저는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특히 처음 두 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적합한 환경을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이 살고 거주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즐길 수 있는 땅이라는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인간,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제 생각에, 신의 창조의 절정입니다. 그것은 사후에 생각해 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은 끝까지 가서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구에 사람이 살고 그것을 즐길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 대신, 처음부터, 창조의 시작부터 그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거주하고 살기에 적합하도록 무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묘사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최고 보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풀어내고, 이러한 주제 중 일부를 더 자세히 풀어낼 것입니다. 이 과정의 나머지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저는 단순히 이것들과 그 중요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핵심 논쟁 중 하나는, 우리가 신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고, 너무 배타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적어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는 여러 구약 학자들과 성경 신학자들이 말했듯이, 다른 표현 방식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권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로서, 그리고 모든 창조물의 주권자로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합니다.

즉, 그의 부통령으로서, 그의 대신 통치할 자로서. 아담과 이브는 그의 대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치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통치해야 했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지닌 자들을 통해 창조물을 통치해야 했습니다.

에레제(Ereze) 의 관습 , 즉 왕이 땅에 대한 통치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형상을 세운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들은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고 대표해야 합니다.

1장과 26절의 시작 부분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고,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장의 절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절정이 인류의 창조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의 처음 며칠 동안의 전체 목표와 땅과 식물의 출현 등은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이 그의 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의 주권, 그의 통치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인해 나타난 그의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표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흥미롭게도, Greg Beal은 여러 곳에서 실제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인류이며, 인류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온 지구에 퍼뜨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두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아담과 이브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지구 끝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Beal은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들의 사명의 일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또한 1장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이 자손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의 대표자로서 온 지구를 채우고 채울 다른 형상을 지닌 자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이며, 존엄성이 있으며, 지성과 도덕적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저는 그것을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로 창세기 1장에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나 땅에 대한 그의 통치를 반영하고 대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첫째, 또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사항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거나, 하나님께서 땅을 적합한 환경, 즉 그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창조하셨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땅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온 땅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그의 부통령으로서 그를 대신하여 통치할 그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서 창조하셨습니다.

토마스 슈라이너가 성경 신학에 관한 최근의 책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전 세계에 왕권을 확장하는 주권적 창조주이시지만, 그는 인간을 통해 통치를 확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세상을 통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창세기 1장에서 발견되는 내용을 잘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 제가 말하고 싶은 세 번째 사항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주하거나 거하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저 세상을 창조한 다음 인간을 창조하여 땅에 부왕, 대표자로 두신 다음 어떻게 든 하늘로 물러나서 자신의 일을 하는 동안 부왕은 자신의 일을 하고, 어쩌면 그들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창조물 속에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전개할 주제인데, 이것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록, 특히 구약성서에서 성막과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후기 기록을 읽을 때, 나머지 구약성서에서 에덴동산과 성막 성전 사이에 온갖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에덴 동산이 나중에 지어진 성막과 성전을 모델로 하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나중에 등장하는 성막과 성전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아담과 이브와 함께 처음 거주하신 첫 번째 장소로 재현하려는 것입니다. 그 동산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 사신 곳이었고, 우리는 나중에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많은 구약 학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 2장 15절에서 아담의 사명을 인식했듯이, 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돌보게 하셨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유지하거나 일하고 돌보는 언어가 이 단어의 후기 사용을 가리키고,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지칭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에스겔 44장 14절에 나오는 종말 성전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이지만, 에스겔 44장 14절에 나오는 현재 성전을 모델로 하고 반영한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된 후에, 나는 그들에게 성전의 의무와 해야 할 모든 일을 맡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은 때때로 역대기 상 23장과 32절이나 민수기 3장과 7, 8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하고, 유지하거나, 돌보는 일이라는 개념은 제사장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성막이 이동식 성전이었고 성전은 더

영구적인 성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막과 성전을 반드시 구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점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했던 일은 우리가 나중에 성막 겸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개념은 2세나 3세 에녹과 같은 일부 묵시록 문학, 구약 성경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묵시록,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이 그를 두시고 하나님이 그의 첫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 정원 성소를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묘사된 다른 작품과 같은 일부 후기 유대교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교 문헌 중 하나에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동산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번쩍이는 장소로 묘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디어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나 장막 또는 성소였고 아담은 정원 성소를 하나님의 거처로 유지해야 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장소였고, 첫 번째 창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 그들이 일을 하게 내버려두고 가끔씩 그들이 궤도를 유지하도록 보장해 주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창조물인 에덴 동산은 또한 첫 번째 성소, 성전,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신성한 공간, 하나님이 그의 첫 번째 백성과 함께 거주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훨씬 더 자세히 발전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 아이디어, 여기서 나오는 네 번째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와 언약을 맺으셨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언약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거나, 언약이라는 언어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언약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만으로, 언약이 여기에 존재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나 메시아의 개념, 또는 예수가 메시아였는지 여부가 왕국이라는 단어의 존재 또는 부재나 메시아라는 단어의 존재 또는 부재에 근거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때로는 언어와 어휘가 없더라도 개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언약의 주제를 전개할 때 나중에 이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언약 창조나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약의 다른 유형은 제 요점이 아닙니다 .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의 관계가 적어도 언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공식적인 언약이 성립되었다고 말하고 싶든, 언약의 모든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수립하는 주권적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관계를 수립하거나 관계를 맺기 위해 주도권을 잡는 주권적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그에 따른 결과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니 다시 2장을 읽을 때, 2장의 우주 창조에 대한 설명과 아담과 이브의 창조에 대한 설명을 주목하세요.

1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쪽에 정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만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동산에서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는데,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었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 동산을 적시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네 개의 상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피손입니다. 그것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관통합니다 .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먹지 말아야 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언약의 요소 중 하나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신 축복은 모든 창조물이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나 결과가 따르는 금지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문구가 발견되지 않지만,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전통적인 언약 공식이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즉,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이라는 단어는 발견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이며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고든 콘웰 신학교의 제 동료인 로이 치암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총독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특별한 방식으로 표시된 낙원 정원에 두시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의 명령을 충실히 존중하는 한, 아니, 한 그루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존중하는 한 축복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그 열매를 먹는 날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적어도 신약성서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을 요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나중에 이것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다른 언약들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했듯이, 언약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는 주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여기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당신은 창조의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당신은 새 창조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언약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21장 3절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에 있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을 보는 새 창조 가운데서, 21장 3절에서,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가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이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는 레위기 26장과 에스겔 37장의 언약 공식에서 바로 발췌한 언어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성경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적 관계에서 새 창조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첫 백성과 언약적 관계에서 발견하는 것의 성취일 가능성이 분명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 제가 말하고 싶은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네 번째, 언약 관계와 관련이 있고 또한 구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주제를 소개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창조물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정체성과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즉 그의 백성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의 일부는 그들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서 표현된 것처럼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맥락에서 제가 이것을 읽을 때, 제 생각에 아담과 이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로를 얻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제공하신 것, 하나님께서 낙원의 맥락에서 그들을 대체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응답으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으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응답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생명을 가져오고 불순종이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바로 그 것,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과 관련하여 모세 언약에서 나중에 발견하는 것과 동일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창조물 공급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응답하여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응답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에 이르면 아담과 이브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순종하여 응답해야 했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야생 동물보다 더 교활했습니다 . 그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는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의 나무에서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 너희 눈이 뜨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을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가 보기에 좋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러운

것을 보고 그것을 따서 먹었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더라.

그리고 결과가 온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열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을 꿰매어 자신들을 위한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와 그의 아내는 주 하나님께서 시원한 날 정원을 거닐고 계실 때 그분의 소리를 듣고 정원 나무들 사이에 주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원에서 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 이 벌거벗었다고 말했나요?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 열매를 먹었나요? 그리고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두신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나요?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너의 후손과 그녀의 후손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나머지는 읽지 않겠지만,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을 따라가다 보면 이 잊혀지지 않는 구절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는 죽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족보이든, 예를 들어 족보와 5장을 읽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은 저주의 일부로 죽게 되거나, 아담과 이브가 언약 관계의 끝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를 맺은 그의 백성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여섯 번째 사항은 인류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반복될 죄, 유배, 회복의 순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율적인 통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던 자들은 이제 자율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는 사탄 또는 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사탄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추측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 사탄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는 언제 타락했습니까?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신 창조물 가운데에 있었습니까? 사탄이 뱀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은유적이거나 문자적입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에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단순히 사탄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에 죄와 악을 도입한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하고 온 지구와 창조물 전체에 그의 영광을 퍼뜨리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는 뱀이나 뱀 또는 용 유형의 인물이 구약의 나머지 부분과 실제로는 신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서 그가 도처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다루어야 할 무언가이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고 궁극적으로 물리칠 무언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생각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 유배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3장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때, 저는 3장 마지막에 있는 2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말씀, 21절에 이어서,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따먹고 영원히 살도록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 그가 취해진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몰아낸 후, 그는 그들을 에덴 동산 동쪽, 카리브해에 두었고, 불타는 칼이 앞뒤로 번쩍이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나중에 일어날 패턴의 시작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제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과 이브의 추방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 성소, 성전 정원,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정원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정원 입구는 두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알아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원에 대한 2번, 3번 항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전 이미지, 동쪽 입구를 지키는 천사 수호자를 주목하세요. 예를 들어, 에스겔 43장에서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동쪽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신 은 죄, 유배, 그리고 회복의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와 유배를 발견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관계를 지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인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시 한번 반복될 주제를 예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언약 관계를 깨뜨릴 것이며, 그들 역시 그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주하시는 성전 성소에서 추방당할 것입니다.

이제, 그 세 번째 부분은 회복입니다. 인간의 죄 가운데, 창세기 3장,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회복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죄로 인해 파괴된 것을 구원하는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창세기에서 적어도 이 첫 장들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분 중 하나가 된 것은 3장 15절과 16절일 것입니다.

15절을 읽어 볼게요. 그리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너의 후손과 그녀의 후손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다입니다. 분명히 이 구절은 어떤 사람들이 프로토- 에반젤리엄이라고 부르는 것을 예상합니다. 뭐라고 부르든 이 구절은 뱀이 여자의 씨에 의해 가해지는 압도적인 타격으로 궁극적으로 패배하는 것을 예상하는 듯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발견하는 것과,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는 것과는 확실히 거리가 멉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이 구절이 선택되어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그로부터 거리가 멀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뱀과 그의 씨를 여자의 씨에서 오는 압도적인 타격으로 궁극적으로 패배시키겠다는 약속의 형태로 회복에 대한 기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마도 우리는 3장 21절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들의 불순종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공급의 또 다른 신호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이 구절에 대해 말해야 할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고 회복하시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 최고의 보석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엮여 있는 주요 주제 중 하나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읽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것에만 국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창조물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은 우주를 창조한 다음 인간을 우주의 한가운데에 두고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 신학에 대한 일종의 소개서인 From Eden to the New Jerusalem을 쓴 Desmond Alexander가 말했듯이, 창세기 3장의 죄에 이어 이어지는 복잡한 이야기는 지구가 어떻게 다시 한 번 신과 인간이 공유하는 거처가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이어지는 복잡한 이야기는 지구가 어떻게 다시 한 번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거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지구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즐거움을 위해 주시는 선물이자 적합한 거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곳에서 첫 번째 창조물인 에덴 동산이 성소로 묘사되거나 묘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나중에 성막과 성전에 적용된 언어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단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마도 핵심이겠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받은 백성이 거주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주할 장소로서 지구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창조물을 자신과 그의 백성이 공유할 거처로 되찾으실 것입니까? 그리고 사실, 다시 한 번, 일종의 도약을 위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성경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최종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물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장소로 회복되었습니다. 창조물 자체가 구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성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 관계로 거하시는 거처가 되었으며,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NT 라이트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자주 말하듯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올바른 곳에 두실 것입니다. 즉, 창조물과 인간을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나머지 성경이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매우 단순하고 매우 일반적으로 나머지 성경 또는 전체 성경, 구약과 신약이 함께 갈등 해결 구조로 전개됩니다. 즉, 창세기 3장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물과 인간에 대한 그의 의도에 대한 서론으로 볼 때, 분수령은 창세기 3장인 듯합니다. 죄가 들어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나머지 성경이 해결책으로 대응할 갈등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해결책이 한 지점에서 한 가지 구체적인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련의 구체적인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갈등 해결 구조는 제가 방금 읽은 알렉산더의 인용문에 존재하는 듯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지구가 어떻게 다시 한 번 거주지가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가정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발생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서로의 관계에서 거주할 거처로 회복시키실까요?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은 인류와 그의 창조물에 대한 선한 목적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땅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라는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다시 한번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한번 그의 백성과 함께 땅에 거주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자의 씨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까요? 창세기 3:15. 제 생각에는, 그러면 나머지 구약과 신약이 이에 답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해결책을 가져오고, 특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죄로 인해 파괴되고 망가진 인간을 위한 그의 창조에 대한 그의 의도를 궁극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일종의 배경이 아니며, 나머지 이야기는 그 나름대로 진행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3장에 있는 그의 계획을 폐기할 수 없고 폐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 또는 신약 신학은 한 차원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그의 창조에 대한 그의 의도를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를 행하실까요? 신약에서 절정에 달하는 나머지 구약은 이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힐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공부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과 관련된 주요 주제, 특히 창세기 1~3장에서 나타난 주요 주제, 그리고 나타난 다른 주제를 살펴보고, 그것들이 구약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어떻게 발전하여 신약에서 절정을 이루는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어떻게 절정을 이루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신약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약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신학을 다루고, 신약 신학을 구성하는 것은 그것이 발전시키는 구약의 전조를 알지 못하고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릴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이것이 이미-하지만-아직-아닌 긴장의 틀 안에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알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기대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는지, 무엇보다도 먼저 시작된 방식으로, 이미 시작된 방식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창조하는 그의 백성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창조에서, 우리가 여러 곳에서 읽은, 특히 요한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읽은 완성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전개될지 그 종류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부분, 제가 다루고 싶은 첫 번째 주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에서 창조와 새로운 창조, 또는 땅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신약 성경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창조, 땅, 새 창조를 기대하는 개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본 다음,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 그의 백성에게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 창조, 완성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듯이, 신약 신학은 성경의 줄거리 또는 스토리라인의 일부로, 창세기 1장과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창세기 1장과 3장은 어떤 의미에서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위한 배경 역할을 하며, 특히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해결될 갈등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3장을 다루는 데서 살펴본 것을 요약하자면, 창세기 1장과 3장에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의 형상에 따라 그들은 그의 부통령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즉, 그들은 창조물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해야 합니다. 그들은 창조물 전체, 지구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통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즉, 그들은 궁극적으로 창조물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통치를 확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는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나 장소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원에 두셨는데, 정원은 하나님의 성소, 거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원에 두어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는 축복이 있지만, 신성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그의 영광, 그리고 그의 임재를 모든 창조물 전체에 퍼뜨려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로 온 땅을 채울 다른 형상을 지닌 자손을 낳아야 합니다.

Greg Beal은 사실 아담이 실제로 에덴 동산을 확장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그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을 확장하고 결국 온 지구를 포함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아담과 이브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지만, 또한 인간의 죄로 인해 파괴된 땅에서 그들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는 이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회복하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창조 속으로, 그가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의 존재를 공유하고, 그의 백성과 그의 존재를 공유하실 곳으로 되돌려 놓으실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 는 신약성서의 창조, 새 창조, 땅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창세기 1-3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루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지만, 다시 살펴보고 조금 더 자세히 개발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에 적합한 환경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 지구를 그의 백성에게 줄 선물로 창조하고 있지만, 그가 그들과 함께 거주할 땅은 그 위에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의도적으로 지구의 나이와 그것이 문자 그대로 24시간의 하루인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7, 6일의 24시간의 하루인지, 아니면 그것들이 다른 것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피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과학적 데이터와 조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자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 말할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주로 하는 일이 그것이 아닙니다. 대신 저자가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이미 말했듯이, 저자가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땅의 선물로 제시하고 그의 백성이 살고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휘튼 칼리지의 구약학자 존 월튼은 모든 것에 동의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창조 기록은 주로 기능적이라는 좋은 주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는 창조된 질서의 물질적 존재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주로 창조는 기능적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세상의 기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대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땅을 은혜롭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고 지금 그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주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머지 구약과 신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땅의 모티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제를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보겠지만, 예언적 문헌 중 일부를 살펴보고 땅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땅과 창조, 그리고 신약에서 새 창조의 관점에서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창세기 1-3에서 신약 신학의 시작입니다.